



즉시 배포용: 2022년 2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조건부 대마초 재배 법안에 서명

이 법안, 올 봄에 뉴욕의 삼배 농부들에게 대마초를 재배할 기회 제공

*조건부 허가의 신속한 추진, 주의 성인용 대마초 프로그램 추적 및 뉴욕의 농부들을
우선시*

*재배 라이선스를 주도하면 향후 성인용 프로그램을 출시할 수 있는 제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됨*

형평성, 포용성, 환경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조건부 성인용 대마초 재배자 면허를 생성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다가오는 성인용 대마 시장을 위한 2022년 성장기에 기존 뉴욕 대마 재배기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조건부 면허를 받은 대마초 농부들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재배 관행, 사회적 형평성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성실한 노동단체와의 노동평화협정 체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농부들이 대마초를 재배하고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안전하고 평등하며 포괄적인 신산업에 박차를 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는 위대한 주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성장을 가져다주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앞장설 것입니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Crystal Peoples-Stok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수년간의 투쟁 끝에, 우리는 마침내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arijuana Regulation and Taxation Act)을 제정했고, 90년 동안 마리화나 금지에 대한 불평등한 시행이 너무 많은 삶과 지역사회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MRTA는 법적 성인용 시장이 뉴욕주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유색인종 공동체와 개인들을 위한 형평성과 경제적 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는 현재 뉴욕의 대마 농가에 임시 조건부 재배 및 가공 면허를 허가함으로써 성인용 대마 산업에 책임감 있는 출발을 만들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MRTA는 소매 약국이 문을 열 때 성인용 대마초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히 안전하고,

규제되며, 환경을 의식하는 대마초 제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은 대마초 재배와 가공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분 파트너가 신흥 산업에서 매우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로를 만들어 줄 사회적 지분 멘토십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에 의해 승인된 임시 조건부 승인은 궁극적으로 MRTA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ichelle Hinch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부들에게 대마초 시장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우리의 법안이 법제화됨에 따라 오늘은 뉴욕에 있어 신나는 날입니다. MRTA는 뉴욕 농부들과 소기업 약국들을 성장과 생산의 중심에 놓는 진정한 원형 대마초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농부들은 이제 우리가 급성장하는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씨앗을 땅에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마초 산업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 농부들을 우선시하고, 사회, 경제적 형평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장려하는 동시에 성인용 시장에 적절한 대마초를 공급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신 주지사와 대마초 관리 사무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Hinchey 상원의원, Peoples-Stokes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등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대마 농가를 위해 이 중요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지사와 제 입법 동료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초기 위험 감수자들은 확실히 성인용 대마초 시장을 활성화하기는데 필요한 지식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산업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새롭고 다양한 농부들과 기업가들을 이끈 멘토로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마초 관리 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의 Tremaine Wright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고 안정적인 뉴욕 대마초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 준 주지사와 입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법은 뉴욕의 농부들이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그 시기는 성인용 프로그램을 출시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안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과 포용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대마초 산업의 선두에 놓고 있습니다."

뉴욕주 대마초 관리 위원회(NYS Cannabis Control Board)의 구성원이자 이전 상원 농무부 의장인 Jen Metz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약국이 문을 열 때 태양에서 키운 대마초로 만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인용 프로그램의 출시를 자연 성장기에 맞추었습니다. 입법부의 전 동료들과 Hochul 주지사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리며, 이사회 동료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과 의미 있는 사회적 형평성 멘토링 기회를 촉진하는 조건부 허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마초 관리 사무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사무 총장인 **Chris Alexan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에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대마초 산업의 중심에 평등과 포용력을 유지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준 Hochul 주지사와 입법부에 감사합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대기업이 아닌 뉴욕 농가를 우리 산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안전하게 재배된 제품을 납품해 국민 보건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법안을 시행하여 우리 농부들이 올 봄에 대마초 재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성인용 대마초 재배 허가증으로 농가는 허가증 발급 후 최대 2년까지 옥외 또는 온실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까지 성인용 가공 또는 유통 면허가 없어도 대마초 꽃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작자는 야외 꽃 캐노피 1에이커(43,560평방피트) 또는 온실 내 25,000평방피트까지만 경작할 수 있고 최대 20개의 인공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 꽃 캐노피가 20,000평방피트 미만으로 유지되는 한 최대 총 캐노피가 30,000평방피트인 야외 및 온실 재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OCM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성인용 대마초 조건부 경작자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지난 4년 중 최소 2년 동안 무독성 칸나비노이드 함량을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농업 시장부의 승인된 산업용 대마 연구 파트너여야 하며 연구 프로그램이 종료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또한 사회적 및 경제적 지분 파트너를 위해 대마초 재배 및 가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업계에서 잠재적인 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지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배자들은 또한 대마초가 환경적으로 양심적인 방식으로 재배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지사의 조치는 그녀와 OCM이 뉴욕에 새로운 대마초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착수했던 신속한 작업에 기반합니다. 1월 주지사의 집행 예산에는 금지 기간 동안 대마초의 과잉 범죄화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적격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라이선스 수수료와 수익을 사용하는 2억 달러 프로그램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지사와 입법부는 또한 그녀의 행정부를 출범시킨 지 몇 주 안에 대마초 관리 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와 OCM 지도부를 임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월 5일 이사회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후, OCM은 다음을 수행했습니다.

- 일반인들을 보호하고 뉴욕의 CBD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Cannabinoid Hemp**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 의료용 대마초가 환자를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자 비용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전체 대마 꽃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환자를 인증할

수 있는 제공자의 목록을 증가시키는 등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 스페인어로 진행된 행사를 포함하여 이미 5,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참여한 11개의 지역 행사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첫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 사무국의 성장하는 팀에 합류하기 위해 재능 있는 전문가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해당 사무국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